“부루나 따르겠다” 법사 40년 외길 인생

〈吾隨富樓那〉



박영동 수석 교법사는… 1957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친구를 통해 처음 불교를 접한 뒤 불교의 매력에 빠졌다.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광주불교학생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열성적으로 신행생활을 했다. ‘포교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갖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공군 군종법사로 임관해 법사의 길을 걸었다. 1985년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 교법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교법사로 봉직했다. 포교 공적으로 2000년 제12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 교육원장 표창을 수차례 받았다. 〈포교이해론(공저)〉〈청소년불교입문(공저)〉〈불교 내비게이션(공저)〉 등 포교 관련 서적들을 다수 저술했다.

테마人 玄道 박영동 수석 교법사 (61 ·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던 이유는 수승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대제자 중 한 명인 부루나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설법이다. 설법으로 부루나가 제도한 중생은 9만 9000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설법 · 전법제일 “부루나를 따르겠다(吾隨富樓那)”고 서원하고 이를 평생에 걸쳐 실천한 이가 있다. 바로 박영동 동국대부속여고 수석 교법사다. 교법사로만 약 34년 봉직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그는 오는 8월 30일로 퇴임한다. 그의 공로를 기념하고자 후배 교법사들은 지난 7월 10일 퇴임 기념법회를 준비해 봉행하기도 했다. 후배들이 나서서 법회를 주관했을 정도로 포교사 · 법사로서의 그의 삶은 지남(指南)이 될 만 하다.

불교와 운명적 만남

동국대부속여고 정각원에서 만난 박영동 교법사에게 조금은 이른 퇴임 소감을 묻자 쑥스러워 하며 말했다.

“대학 졸업 이후 오로지 군법사, 교법사로만 40여 년을 살아 왔는데, 그동안 오로지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법사로서 한 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속 규정에 의해 이제 학교를 떠나지만, 더 자유롭게 전법의 길을 갈 겁니다. 그간 가족에게 소홀했으니 가족에게도 봉사해야지요.”

그가 말한 퇴임 소감처럼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법사로의 삶을 살았다. 법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연유인 불교와의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왔다.

박영동 교법사는 고등학교까지 종교에 별 관심없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던, 소위 요즘 말로 ‘범생이’였다. 고등학교 2학년 4월에 떠난 전국 일주 코스의 수학여행에서 그는 불교를 처음 만난다. 당시 서울 종로 무교동에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는데, 친구 한 명이 새벽녘에 일어나 숙소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조계사였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친구의 모습이 낯설고도 신기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친구에게 물었다. “넌 어디서 불교를 배웠니?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 그러자 친구는 밝은 얼굴로 광주 시내의 관음사를 소개해줬다. 그곳에서 시작한 불교 신행생활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이후 박영동 교법사는 천운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조계종 광주불교학생회 창립을 주도했고, 스님의 주석처인 향림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갔다. 고3 수험생이었지만, 매주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열기 왕성한 시기였던 만큼 맹랑한 부분도 있었다. 유신독재 시절 박영동 교법사는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 등이 벌어졌는데도 불교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법회 시간에 천운 스님에게 이를 따지듯 물었다. 그러자 천운 스님은 “그런 질문을 하려거든 교회를 가라”고 나무랐다. 이에 실망한 박영동 교법사는 한동안 사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불교 서적을 보며 공부했다.

3개월 뒤 故 홍정식 · 목정배 교수를 강사로 불교사상강연회를 연다는 소식에 광주 학생회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천운 스님을 재회했다. 스님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요즘 수험공부 때문에 바쁘구나. 법회에 안 나오는 것을 보니”라고 다독였다.

스님의 모습에 박영동 교법사는 혼자서 스님을 미워하고 불교를 싫어했던 자신의 좁은 소견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다시 찾은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한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된다. 큰 결심을 한 학생 박영동은 천운 스님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 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서원 실천하며 전법의 삶

이에 천운 스님은 불교학과 진학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부모님의 반대가 염려돼 일부러 전기 대학에 거짓으로 응시했던 박영동 교법사는 후기 대학인 동국대의 불교학과에 원서접수 1번으로 지원했고 1976년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 1학년 당시 일찌감치 군종장교 시험에 응시 · 합격한 그는 그해 겨울 무작정 김천 직지사로 떠났고, 그곳에서 은사인 녹원 스님을 만나 삭발염의했다. 그의 출가 이유는 명확했다. 법사가 되기 위함이었다.

“출가 상담하면서 녹원 스님에 ‘저는 법사가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법을 전하는 법사로 살기위해 ‘단기출가를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은사 스님은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의 ‘현도(玄道)’라는 법명도 녹원 스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스님은 틈틈이 저에게 ‘공부가 잘 되느냐’고 물으며 살뜰히 살펴주셨습니다.”

法師로서의 삶을 서원하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서 불교 접해
향림사서 천운 스님 지도법사로
광주불교학생회 창립 주도하기도
포교사의 꿈 품고 불교학과 진학
군종법사 앞서 단기출가 생활도

스승, 법사로 이끌다

녹원 스님 은사로 직지사서 출가
수시로 점검하며 살뜰히 살펴
대학 졸업 후 박완일 회장 곁에서
포교지 발간 · 설법하는 방법 배워

이후 서울 회기동 연화사에서 대중생활과 학업을 병행했던 그는 대학 졸업 이후 군법사 임관까지 1년여 공백 기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박영동 교법사는 월간 〈법륜〉 발행이자 당대 명설법가로 이름을 날리던 박완일 전국신도회장을 모시며 그의 설법 방법을 배웠다.

공군 군법사로 임관한 그는 4년 동안 군포교에 전념했다. 대위 시절에는 그의 좌우명이 될 글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했던 혜정 스님에게 ‘오수부루나(吾隨富樓那)’라는 휘호를 즉석에서 받은 것. 이후 ‘부루나를 따르리라’라는 뜻의 글귀는 박영동 교법사의 신념이 됐다.

군 제대 이후에는 곧바로 당시 명성여고(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교법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동국대부속여고에서 8년, 동국대부속고에서 11년, 다시 동국대부속여고에서 8년, 영석고에서 3년, 다시 동국대부속여고서 3년을 봉직했다.

박영동 교법사는 희유한 불법의 인연을 만나 법사로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모두 “스승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4〉
B5 문화 영담한지미술관 ‘10中89’展
B6 학술 대행선연구원 제4회 계절발표회